

여의도 파크원, 전통과 현대 공존 디자인으로 랜드마크 노린다



여의도 파크원 조감도

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이 '도심 속 문화공간'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.

여의도 파크원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이름을 떨친 리차드 로저스 경이 지금까지 맡은 단일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상 72층, 56층 오피스 타워 2동과 백화점, 호텔 등 총면적이 63만 177m²에 달한다.

63빌딩의 4.5배의 크기로 제2롯데월드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완공 후 오피스, 쇼핑몰, 호텔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여의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.

8일 시행사에 따르면 여의도 파크원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붉은 색채를 사용한 외부노출 골조다. 푸른 색을 중심으로 한 차분한 색감의 건축물에 붉은 색의 골조가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주목할 랜드마크로서의 깊은 인상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는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우리나라 고유 전통건축물을 채색으로 장식하는 '단청'을 모티브로 하여 현대화 한 전통 색채를 건축물에 도입한 것이다. 음양오행 이론을 대입시켜 색과 색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단청의 배색과 형태는 한국 전통건축의 정수라 할 수 있다.

랜드마크라고 해서 단순히 높고 화려한 건축물이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, 자연과 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설계자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.

또 여의도 파크원은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, 그 중심에 위치한 여의도라는 공간의 밀집성이 고려되었다. 혁신적인 외관으로 시선을 끌고, 편의시설은 물론 문화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.

사회관계망서비스(SNS)가 보편화 하면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생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,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. 따라서 파크원처럼 구조적,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소문을 타게 돼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브랜드가 될 것이라는 전략인 셈이다.

이경하 기자 lgh0811@segye.com

2018-08-08 15:47:00

세계파이낸스 뉴스&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계파이낸스 COPYRIGHT © 세계파이낸스 All rights reserved.